

고려 상형청자 조형의 상징성과 문화사적 의미: 開京·江都의 상형청자를 중심으로*

박지영**

- I. 머리말
- II. 고려 상형청자 조형의 상징성
- III. 개경·강도 상형청자와 고려 상류층의 문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상형청자는 대상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청자로 정의되는데, 주로 동식물이나 인물의 형상을 본떠서 제작된다. 고려청자 외에 상형자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는 고려에서 유난히 다종다양한 상형청자가 활발히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상형청자에 대한 연구는 중요도에 비해 다수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석사학위논문에서 고려 상형청자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의미 있는 고찰을 시도하여, 고려 상형청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 특히 상형청자의 기종과 형태, 상징성

* 본 논문은 2025년 1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미술사학회 공동주최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미술문화유산연구실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미술문화유산연구실 학예연구관

1 박지영, 「고려시대 표형병(瓢形瓶)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백은경, 「高麗 象形靑磁 研究」

등을 세밀하게 다루어 고려 상형청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형청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고, 고려 상형청자를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²

본고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상형청자의 개별적인 형태나 양식, 변천보다는 고려시대 상형청자의 소재와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상형청자가 어떠한 용도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개경과 강도의 상형청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13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고려의 상형청자는 미학적인 측면 외에도 당시 고려인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사용 목적에 맞는 의미와 상징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고려인이 그리던 이상적인 세계와 관념들이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II. 고려 상형청자 조형의 상징성

고려 상형청자는 상서로운 동식물이나 인물 등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상서로운 동식물이 언제부터 그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상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상징들이 결합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상징의 기원이나 의미는 점차 희석되고, ‘吉祥’과 같이 보다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상징 체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고려 사회의 주도층이었던 문인들은 經世的 측면에서는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밑바탕에는 도교적 관념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儒佛道의 三敎가 어우러져 있는 사회였다. 이 삼교는 오랜 기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인 문화와 상징을 형성했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와 상징 속에서 유불도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해 내기보다는 고려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려 상형청자의 모든 조형을 다룰 수 없으므로, ‘長生과 繼續性’, ‘神·人의 媒介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민하, 「고려시대 청자문방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한아영, 「高麗時代 靑磁 佛像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함차량, 「高麗時代 靑瓷 瓜形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호영아, 「고려시대 상형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상형청자 1』 (202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상형청자 2』 (2023); 국립중앙박물관,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

者'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소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不老長生과 신선 같은 삶에 대한 동경 등 개인적인 바람이 담겨 있으며, 왕에 대한 祝壽, 王業의 지속, 국가의 安寧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왕권의 신성화와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활용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 長生과 繼續性

상형청자에는 불로장생과 계속성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다수 등장한다. 주로 종자가 많고 생장이 빠른 식물들이 소재로 선택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박과 식물, 석류, 죽순 등이 있다. 동물 중에는 토끼, 두꺼비, 원숭이 등이 장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재이다.

1) 박과 식물 (瓢, 瓜)

박은 씨가 많고 줄기의 생장이 왕성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력과 계속성, 번성을 상징한다. 조롱박, 수세미, 오이, 참외, 수박 등은 박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로, 이 중에서 조롱박(瓢, 葫蘆)과 참외(瓜)가 고려 상형청자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박과 식물 형태의 기명에 참외의 문양을 그려 넣거나 유사한 상징성의 포도나 가지 등을 시문하여, 계속성과 번성이라는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였다(Fig. 1).



Fig. 1. <청자 상감포도문 표형 주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Inlaid Grapes Design, Koryŏ, H, 31.8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2. <청자 음각과문 주자> Celadon Ewer with Incised Melons Design, Koryŏ, H, 19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오늘날 ‘瓢’라 하면 주로 두 개의 박이 상하로 연결된 형태를 지칭하지만, 원래는 동체가 상하로 나뉘지 않는 형태의 박도 포함하는 것이다.³ 따라서 동체를 의도적으로 아주 동그란 형태로 만든 주자도 둥근 球形의 박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Fig. 2).

표형 기명은 주로 음주와 관련된 기명으로 도가적 색채가 강하다. 호로병은 신선의 지물로 不老長生の 상징이라 할 수 있어, 호로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신선의 不老酒를 마신다는 의미였다. 『宣和奉使高麗圖經』〈延英殿閣〉에 인용된 시에서도 마시면 늙지 않는 술인 불로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러한 인식은 상류층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표형 기명은 자기 외에 도기로도 제작되어 수요의 범위가 넓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불로주와 표형병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분청사기나 조선 후기 백자로까지 제작되었다.

과형 기명은 眞瓜, 즉 참외의 형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縣縣瓜瓞’은 『詩經』「大雅」의 ‘綿’에 나오는 구절로 周 왕실이 자손대대로 길게 이어져 번창하라는 찬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李奎報(1169~1241)의 『동국이상국집』에 ‘면면과질’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고려에서도 瓜를 귀한 혈통과 후손의 번창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⁵ 과형 기명도 표형 기명과 마찬가지로 도기로 제작되어 일반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과형 기명은 ‘번창하고 이어진다’,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계속성의 상징으로 폭넓게 이해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형 기명 중에 병은 주기가 아니라 花器로 사용되었다. 인종 장릉(1146 하한) 출토품으로 대표되는 과형병은 구연부의 형태로 볼 때, 술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13세기 고려 불화에 과형병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병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형병의 특징인 주름처럼 표현한 굽 과편이 강도의 유적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강도 시기에도 과형병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형 기명의 특징인 세로골(선)이 표형 기명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세로골(선)은 박과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박과 식물에 속하는 조롱박(瓢)에서도 세로골(선)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었다. 다만, 고려 후반에는 세로골이 세로선처럼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과형 기명을 상형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식화된다.

3 최유미, 「조선시대 백자 표형병(瓢形瓶)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 4-15.

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6 宮殿2〈延英殿閣〉, “魯侯戾止, 在泮飲酒, 既飲旨酒, 永錫難老。”(노후가 이르러 반궁에서 술을 마시네. 이미 좋은 술을 마셨으니 영원히 늙지 않겠네.)

5 함차량, 앞의 논문, pp. 7-10.

2) 석류, 복숭아

석류는 球형의 열매 안에 많은 씨가 들어 있는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대표적인 다산의 상징으로 꼽힌다. 불교에서 석류는 부처님의 멸신 유골(진리의 불법)이 스투과(알, 석류)에 담겨 있다가 만방에 퍼지는 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⁶ 즉, 불법이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계속성과 번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석류는 고려시대에 행해진 대표적인 도교 풍속인 守庚申과도 관련이 있다. 庚申일에 사람 몸 안에 있던 三尸蟲이 잠든 사람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 上帝에게 그 동안의 죄과를 고하는데, 그에 따라 상제가 사람의 壽와 命을 조종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신일 밤에 삼시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밤새 깨어 있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경신이다.⁷ 忠烈王(1274~1308)이 태자였을 때, 수경신을 행한 기록이 보이는데 경신일에 술을 마시며 밤새 연회를 즐기는 것이 國俗, 時俗이라고 하였다.⁸ 明대 李時珍(1518~1593)의 『本草綱目』에 道家書에서 석류를 三尸酒라 하는데, 三尸蟲이 석류를 먹으면 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甘石榴는 “制三尸蟲” 즉, 삼시충을 억제한다고 적고 있다.⁹ 조선시대 李萬敷(1664~1732)의 저서 『魯谷草木誌』에도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삼시충을 잡아두기 위해 벌어지는 경신일 밤 연회에서, 석류 모양의 주자는 술을 담아 마시기에 최적화된 기물이었을 것이다(Fig. 3). 석류 모양의 주자는 도교의 풍속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고려의 창의적인 상형청자라 할 수 있다.

복숭아는 일찍부터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이다. 陶淵明(365~427)의 <桃花源記>에서 복숭아나무가 가득한 桃園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늙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현세와 시공간이 분리된 동양의 이상향이다. 고려 상형청자의 복숭아는 연적으로 제

6 이희봉, 「인도 스투과의 '자궁-알' 상징성 고찰을 통한 탑 상부 복발 양화와 단청 석류동의 해석」,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289 (2012), pp. 243-250.

7 庚申守歲를 일곱 번 하면 삼시가 완전히 사라져서 불로장수할 수 있다는 도교의 張生法 중 하나이다. 김철웅, 「고려시대의 도교 세시풍속」, 『민속학연구』 43 (2018), pp. 34-36.

8 『高麗史』 卷26 원종 6년 4월 庚申, “太子 激宴安慶公 奏樂達曙 國俗 以道家說 每至是日 必會飲 徹夜不寐 謂之守庚申 太子亦徇時俗 時議非之” (태자가 안경공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새벽까지 음악을 연주하고 밤을 새웠다. 國俗으로 道家의 말에 따라 이 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 마시면서 밤을 새웠는데, 이것을 ‘수경신’이라고 하였다. 태자도 당시의 풍속을 따른 것이지만 이를 비난하였다.)

9 李時珍, 『本草綱目』 卷30 <安石榴>, “道家書謂榴爲三尸酒言三尸虫得此果則醉也. … 甘石榴 … 制三尸蟲.” (도가서에서는 석류를 삼시주라고 하는데, 삼시충이 이 과일을 먹으면 취하기 때문이다. … 단 석류는 … 삼시충을 억제한다.)

10 李萬敷, 『魯谷草木誌』 <石榴>, “博物志, 張騫使外國十八年, 得塗林安石榴種云, 或謂出自安石國故名. 道家謂三尸酒, 以三尸得此果則醉也. 今有甘酸二實, 酸者入藥.”

작되거나 원숭이, 인물 등과 결합한 형태의 주자, 묵호 등으로도 제작되었다. 특히 복숭아 모양의 연적은 조선 후기 백자로도 만들어진 상형의 대표적인 소재라 할 수 있다.



Fig. 3. <청자 석류형 주자> Celadon Pomegranate-shaped Ewer, Koryŏ, H. 18.3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4. <청자 도교인물형 주자> Celadon Daoist Figure-shaped Ewer, Koryŏ, H. 28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왕이 내린 ‘御苑種仙桃’ 시제에 맞춰 고려의 문신이었던 崔惟善(?~1075)이 지은 시를 보면, 閔苑에서 옮겨온 복숭아 나무를 御苑에 심었는데, 복숭아는 서왕모가 바친 것이니 聖壽가 천년을 더할 것이라 하였다.¹¹ 해동공자 崔冲(984~1068)의 아들이었던 유학자 최유선은 도교적 신화에 빚대어 왕을 위한 祝壽詩를 썼고, 이 시로 장원에 급제하였다. 시에 등장하는 서왕모는 곤륜산에 사는 도교 신화 속의 여신으로 蟠桃會를 열어서 불로장생의 복숭아인 반도를 나누어 주는 장생불사의 상징이다. 고려에서 정월에 서왕모 상을 모시기도 했다고 하는데,¹² 상형청

11 崔滋, 『補閑集』卷上<鄭中丞敍雜書, 載崔侍中惟善閨情詩云>, “御苑桃新種, 移從閔苑仙. 結根丹地上, 分影紫庭前. 細葉看如畫, 繁英望欲然. 品高鷄省樹, 香接獸爐烟. 天近先春茂, 晨清帶露鮮. 是應王母獻, 聖壽益千年.”
 12 『宋史』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大中祥符…八年…遣御事民官侍郎郭元來貢 元自言…風俗頗類中國. 無羊兔 橐駝水牛驢氣候少寒 暑差多…每正月一日五月五日祭祖禰廟 又正月七日 家為王母像戴之” (대중상부…8년(1015) …이사민관시랑 곽원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곽원이 스스로 말하기를, “…매년 정월 초하루와 5월 5일에는 조상의 사당에

자 중에도 서왕모로 여겨지는 도교 인물이 복숭아를 들고 있는 형태의 주자가 있다(Fig. 4). 최유선의 시와 『宋書』의 기록을 통해 당시 왕과 당대 지식인을 비롯한 민간에서 서왕모, 낭원, 반도, 장생 등의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왕과 왕업을 축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신성화하려는 경세적인 면에서 도교적 세계관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 토끼와 두꺼비, 원숭이



Fig. 5. <청자 투각칠보문 향로> Celadon Incense Burner with Openwork Seven Treasures Motif, Koryŏ, H. 15.3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6. <청자 상감포도문 표형 주자의 부분>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Inlaid Grapes Design (detail), Koryŏ, H. 38.6cm,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Museum of Oriental Ceramics, *Sparkles of Jade Koryŏ Celadon*, pp. 250-251)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자, 설화 속의 친근한 동물이다. 하지만 토끼를 기명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향로 중에 토끼가 등장하는 독특한 조형의 청자 향로가 있다(Fig. 5). 고려청자에 토끼 도상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상감청자의 문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청자 상감포도문 표형 주자>에는 계

제사를 지내고, 정월 7일에 人家에서는 서왕모의 像을 받든다.”)

수나무 아래에서 절구를 찧고 있는 토끼가 있고, 다른 면에는 삼족烏가 있다(Fig. 6). 도교에서 토끼는 달을, 삼족우는 해를 상징하는데, 토끼는 서왕모의 불사약을 만드는 신령스러운 존재이다.¹³ 金克己(1150~1204)는 왕이 하사한 약을 토끼가 달에서 방이를 찧어 만든 仙丹에 비유하였는데, 불로장생과 관련된 토끼의 상징성이 명확히 드러난다.¹⁴ 술을 불로주로 인식했듯이 당시에 향(향환)을 불사약인 선단처럼 인식했기 때문에, 선단(향환)을 만드는 토끼가 향로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Fig. 7. <두꺼비토끼문 원와당> Round Roof Tile with Toad and Moon Rabbit Motif, Unified Silla, D. 12.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8. <청자 퇴화문 두꺼비형 연적> Celadon Toad-shaped Inkstone with Raised Floral Design, Koryŏ, H. 3.9cm,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https://www.seamuse.go.kr>)

서왕모 신화와 관련하여 고려청자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동물로 두꺼비(蟾蜍)가 있는데, 서왕모의 불사약을 혼자 먹은 姮娥가 두꺼비로 변해서 토끼(玉兔)와 함께 달에서 산다는 것이다. 토끼와 두꺼비가 함께 등장하는 도상은 일찍이 고구려 고분벽화나 통일신라의 기와, 고려시대 청동거울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Fig. 7). 12세기의 문인이었던 林椿이 쓴 <記

¹³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p. 5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도교 문화』 (2013), p. 324.

¹⁴ 『東人之文四六』 卷9, 陪臣表狀 謝賜詔書兼藥物表, “鸞廻天上, 泥函垂帝詔之溫, 兔擣月中, 玉合降仙丹之妙, 沈痾去體, 喜氣填胸.” (난새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 泥函에 따뜻한 황제의 조서를 내리시고, 토끼가 달 가운데 방이를 찧어 玉盒에 신묘한 仙丹을 내려 보내주시니, 묵은 병이 몸에서 가시고 기쁜 기운이 가슴을 메웁니다.)

夢)에서도 月宮, 향아, 서왕모, 낭원이 등장한다.¹⁵ 두꺼비 모양의 청자벼루는 개경으로 향하던 중 배가 침몰되어 태안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崔滋(1188~1260)의 시에서도 등장하여 12~13세기 개경의 문인들이 사용한 상형청자였음을 알 수 있다(Fig. 8).¹⁶ 두꺼비 모양의 문방구가 제작된 것은 과거에 합격함을 의미하는 ‘蟾宮折桂’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수나무가 있는 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인식, 관념이 전제된 것이다.

원숭이는 고려 상형청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주목할 만한 동물이다. 원숭이는 한반도에 자생했던 동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동물로, 기상서 덕의 원숭이처럼 일부 권세가들이 애완으로 키우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흔한 동물은 아니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상형청자로 만들어진 것은 원숭이 ‘猴’와 제후의 ‘侯’자의 발음이 같아 높은 직위, 관직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고려시대 사료에서 원숭이를 ‘후(猴)’가 아니라 ‘원(猿)’, ‘미(獼)’로 적고 있어, 同音語에 근거한 고려시대 원숭이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만일대에서 출토된 상감청자 편호의 한 면에는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가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토끼가 있다(Fig. 9). 앞서 ‘장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토끼, 복숭아와 함께 시문된 원숭이의 상징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숭이와 복숭아가 결합된 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大唐三藏取經詩話』나 『西遊記』를 참고할 수 있다.¹⁸ 여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은 재주

15 林椿, 『西河先生集』 卷1 古律詩 61 〈記夢〉, “我夢乘風到月宮。排門直捉恒娥問。奈何使爾司春桂。與奪不公人所惱。… 紫府今書君姓字。曾陪王母遊園苑。” (꿈 속에 바람을 타고 월궁에 이르러, 문을 밀치자 곧장 향아를 붙들고 물었네. 어찌하여 그대에게 계수나무를 맡겼더니 주고 뺏음이 불공평해 사람들이 성을 내나 … 자부에는 지금도 그대의 이름이 써 있거니 과거에는 서왕모를 모시고 곤륜산에서 놀기도 했었지요.)

16 崔滋, 『補閑集』 卷下 〈詩評曰〉, “蟾腹硯寒書易凍, 猊蹄鑪煖坐慵遷.” (두꺼비 베투가 차가우니 글자가 얼기 쉽고, 사자 화로는 따스하니 앉은 자리 움직이기 싫네.)

1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9 古律詩 〈尙尙書宅賦怒猿〉, “猿公有何嗔。人立向我呻。爾思巴峽月。獸絆朱門高。我戀碧山隱。浪受紅塵勞。我與爾同病。胡爲厲聲咆。” (원숭이가 무슨 성낼 일이 있었는지, 사람처럼 서서 날 향해 울부짖네. 아마도 너는 파협의 달빛 생각하여, 높직한 주문에 얽매임 싫어하리, 나도 벽산에 은거함을 생각하며, 부질없이 흥진의 시달림을 받노라, 나와 너는 같은 병을 앓는데, 넌 어찌하여 사납게 부르짖나. 이 시에서 원숭이의 또 다른 상징성을 살필 수 있다. ‘巴峽의 달빛을 그리워하는 원숭이’와 ‘碧山에 隱居하고 싶은 나’를 비유하였는데, 이는 隱逸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협곡의 원숭이(울음 소리)는 사람이 닿지 않는 무위자연과 은일을 상징하여, 唐대 杜甫(712~770)의 시처럼 문인들의 글과 그림에 종종 등장한다.

18 중국 고전 장편소설 특징 중의 하나는 형식과 내용이 특정 시기, 특정 작가에 의해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를 흡수하여 완성된다는 것이다. 소설 『西遊記』는 唐, 宋, 元의 설화, 전설 등을 집대성하여 만든 명대 吳承恩의 장편의 소설이다. 하지만 宋의 『大唐三藏取經詩話』나 元의 잡극 『西遊記』가 이미 작품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大唐三藏取經詩話』의 제11장 ‘入王母池之處’는 서왕모의 瑤池(연못)에 도착하여 발생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손오공의 전신인 후행자(손행자)가 蟠桃를 훔쳐 먹고 벌을 받는데, 이는 소설 『西遊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의 ‘경천사 10층 석탑’에도 서유기 부조가 확인되어 서유기가 고려에 이미 전해져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많고 특별한 원숭이로, 서왕모의 蟠桃와 太上老君의 金丹을 먹은 장생불사의 존재로 묘사된다.¹⁹ 여기 등장하는 나무도 일반적인 나무의 잎과 다르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였는데, 꽃이 핀 복숭아 나무를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편호의 원숭이를 ‘제후’로 해석하는 것 보다 반도원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반도를 들고 있는 장생불사의 원숭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Fig. 9. <청자 상감원숭이토끼문 편호>, Celadon Flat Jar with Inlaid Monkey and Rabbit Design, H, 25.5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서도 장수와 불변을 상징하는 바위, 소나무, 학과 함께 원숭이가 등장하는 ‘巖猿松鶴’이라는 구절이 나온다.²⁰ 이처럼 원숭이는 불로장생의 의미와 함께 불교에서는 불경, 불법을 전하고 수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불교와 도교가 습합된 消災祈福적 성격의 星宿信仰에서 水曜의 관식에서도 원숭이 도상이 확인된다.²¹ 원숭이는 불교와

수 있다. 이시찬, 「『대당삼장취경시화』 연구」, 『中國文化研究』 40 (2018), pp. 29-51; 신소연, 「圓覺寺址 十層石塔의 西遊記 浮屠 研究」, 『미술사학연구』 249 (2006), p. 83.

19 ‘太上老君’은 도가의 시조라 할 수 있는 老子를 도교에서 신격화하여 일컫는 호칭이다.

20 崔滋, 『補閑集』 卷下, “節作詩云, ‘聖勅巖明辭未得, 巖猿松鶴別江東. 多年幸免魚吞餌, 一旦翻爲鳥在籠. 無限旅愁宮裡月, 有時歸夢洞中風. 不知何日君恩報, 瓶錫重回對碧峯.’ …”

21 십일요 중에서 九曜는 각각을 상징하는 동물 장식의 관을 쓰고 있는 인물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水曜는 상류층 여인들의 머리형태인 巨頭味形의 두발에 원숭이 관식이 묘사되어 있었다. 오영인, 「고려시대 원숭이형 청자문방용구에 대한 시론」, 『민속학연구』 45 (2019), pp. 121-154.

도교를 구분하지 않고 靈物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원숭이를 애완으로 키우거나 원숭이 모양의 문방구를 만들어서 곁에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神 · 人의 媒介者

상서로운 동물들은 대부분 하늘과 땅, 물과 같이 서로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특성이 있어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水陸兩生의 동물이 이에 속하는데, 고려 상형청자의 소재로 오리, 원앙, 거위, 귀룡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1) 水禽(水鳥)類

수금류는 고려 상형청자에서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된 소재이다. 특히 오리와 원앙, 거위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오리, 원앙이 상형청자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를 주변에 있는 친숙한 존재라거나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의미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보다는 수금류가 갖는 수륙양생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새는 천상과 연결되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使者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물로 상징되는 신성한 공간과 육지라는 인간의 공간을 유유히 오가는 수금류는 신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매개자이자 전달자였다.



Fig. 10. <청자 오리형 향로> Celadon Duck-shaped Incense Burner, Koryŏ, H. 23.5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1. <청자 오리형 연적> Celadon Duck-shaped Water Dropper, Koryŏ, H. 7.6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의례나 종교에서의 분향은 정화의 의미와 함께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신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수금류는 분향의 도구였던 향로의 소재로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Fig. 10). 수금류를 소재로 많이 사용한 또 다른 기종은 연적이다. 연적으로 제작된 동물들은 대부분 연꽃 줄기로 보이는 식물의 줄기를 입에 물고 있거나 목에 감고 있다(Fig. 11). 새가 장식물이나 綬帶 혹은 꽃 등을 물고 있는 도상을 銜鳥文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신의 매개자인 새가 무언가를 물고 오는 것은 신성하고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꽃 가지 등을 물고 있는 銜鳥花文은 상서로움, 長壽 등의 의미를 지닌다.²² 문인의 서체에 놓인 수금류 연적은 좋은 일, 소식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기물이었을 것이다.

수금류 형태의 향로는 '香煙을 통해 신에게 인간의 염원을 전하는 역할'에 맞게 목을 빼고 입을 벌린 형태로 제작되었고, 연적은 '신의 상서로운 메시지를 물고 와서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에 맞추어 꽃줄기를 입에 문 형태로 표현되었다. 즉, 수금류라는 동일한 소재가 향로와 연적에서 각각의 용도와 상징성에 따라 다른 조형으로 표현된 것이다.

2) 龜甲類

고려 상형청자에서 귀갑류는 실제 거북이 보다는 龜甲을 가지고 있는 상상의 동물인 龜龍의 형태로 나타난다. 귀룡은 四靈인 거북과 용이 결합한 서수로, 일찍이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물과 육지를 오가는 수금류처럼 귀갑을 가진 귀룡이나 玄武 등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오가며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준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귀룡은 향로와 주자, 연적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향로를 제외한 주자나 연적에서는 앞서 본 수금류와 같이 귀룡이 꽃의 줄기를 입에 물고 있거나 연꽃에 앉아 있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었다(Figs. 12, 13). 이처럼 수륙양생의 수금류와 귀갑류는 상징성과 조형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수금류에 비해 귀갑류 형태의 기명은 조형이 조금 더 복잡하고 공들여 제작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고급의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22 신숙, 「統一新羅와 唐의 銜鳥文 研究」, 『미술사연구』 24 (2010), pp. 71-72.



Fig. 12. <청자 귀룡형 주자> Celadon Ewe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Koryŏ, H. 17.3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3. <청자 귀룡형 연적> Celadon Water Droppe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Koryŏ, H. 6.1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귀갑에는 대부분 ‘王’자가 새겨져 있는데, ‘丰’자를 새긴 경우도 있다(Fig. 13). ‘丰’은 ‘풍부하다, 넉넉하다’는 의미와 함께 ‘예쁘다’는 의미도 있다. ‘丰’자가 새겨진 귀룡 모양의 연적은 보이지 않는 배 부분까지 음각으로 표현한 고급의 청자이다. 길상적인 의미를 담아 어여쁘게 공들여 제작한 귀룡형 연적에 ‘王’자와 비슷한 ‘丰’자를 새긴 것은 고려 상형청자만의 재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Ⅲ. 개경·강도 상형청자와 고려 상류층의 문화

Ⅱ장에서 살펴본 상형청자의 소재와 상징성을 통해서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에 공통적으로 不老長生에 대한 염원, 그리고 매개자를 통해서 신과 닿길 바라는 고려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 상형청자는 고려 사회의 焚香·飲酒·玩賞文化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데, 개경과 강도는 이러한 문화의 주 향유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다. 고려의 상류 문화에서 사용된 개경·강도 상형청자를 통해 고려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理想郷과 現世的인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1. 개경·강도 상형청자의 양상

상형청자는 대체로 품질이 뛰어난 고급의 청자인 경우가 많다. 고급 청자의 주요한 수요처는 왕실을 비롯한 權臣들의 거처였던 고려의 수도 개경과 임시수도 강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 상형청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상형청자들의 대다수가 사실상 ‘개경과 강도의 상형청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과 강도의 상형청자는 구체적인 출토 위치나 상황 등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출토 지역이 ‘개성 부근’이라고 소개되는 정도이며, 수도였던 기간이 40년도 되지 않는 강도는 유적이 파괴되거나 도굴 등으로 유물이 반출되어 대략적인 양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구제 발굴의 형식이지만 강화 지역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단편적이거나 강도 유적과 유물의 양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²³

개경과 강도의 상형청자라고 명확히 알 수 있는 유물의 상당 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이나 개인들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등에서 공개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물과 발굴보고서 그리고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개경·강도 상형청자의 기종과 소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1).²⁴ 강도 시기가 매우 짧고, 입도민의 이동에 따른 유물의 이동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파악되는 유물과 정보만으로 개경과 강도의 상형청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경·강도의 상형청자의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Table 1〉 개경과 강도 상형청자의 기종과 소재 The Types and Motifs of Sculpted Celadon at Kaegyöng and Kang-do

Classification	Types of Vessels	Motifs	Kaegyöng	Kang-do	Remarks
Incense-burning Culture	Incense Burner	Dragon	○		

23 증원문화재연구원, 『강화 대산리 유적』 (2011); 『강화 옥림리 유적』 (2012); 국방문화재연구원, 『강화 월곡리·옥림리 유적』 (2016); 기호문화재연구원,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2권 강화 용정리 유적)』 (2019a);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5권 강화 대산리 고려분묘군)』 (2019b); 두류문화연구원, 『강화 관청리 유적』 (2023); 화서문화유산연구원, 『강화 신문리 596-1번지 유적』 (2024).

24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22, 2023, 2024); 국방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pp. 185, 188, 385, 388, 507, 629; 기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a), p. 242; 기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b), pp. 158-160; 두류문화연구원, 앞의 보고서, p. 572;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pp. 391-409.

		Mandarin duck	○	○	
		Duck	○		
		Rabbit	○		
		Fish-dragon	○		
		Lion	○		
Drinking Culture	Ewer	Turtle-dragon	○		
		Bird	○		
		Melon	○	○	
		Gourd	○	○	
		Pomegranate	○		
	Bamboo shoot	○			
Bottle	Gourd	○		Approximately 20-40cm	
Dish, Bowl	Flower	○			
Appreciation Culture (Stationery, Flower Vases, Medicinal Containers, etc.)	Water Dropper	Turtle-dragon	○		
		Duck	○	○	
		Fish	○		
		Melon	○		Shape of a small ewer
		Gourd	○		Shape of a small ewer
		Bamboo shoot	○		
		Lotus bud	○		
		Human figure	○	○	
		Monkey	○		
	Lion		○		
	Inkstone Water Bottle	Monkey	○		
	Brush Rest	Dragon	○		
	Inkstone	Toad	○		
	Seal	Monkey	○		
		Fish	○		
	Pillow	Lion	○	○	
	Bottle	Melon	○	○	Flower Vases
Gourd		○		Classified as approximately 10cm or 5cm in size	
Religion	Human Figurine	Arhat, etc.	○	○	
Others	Others	Dragon, Monkey, etc.	○	○	Unknown purpose

개경과 강도 상형청자의 주된 기종은 향로, 주자와 문방구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焚香과 飲酒, 玩賞 문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종들이다. 소재 면에서는 표형과 과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오리와 원숭이의 비중도 높다. 이러한 개경·강도 상형청자의 양상은 고려 상형청자의 전반적인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²⁵ 강도 시기보다는 개경 시기에 상형청자가 다종다양하게 활발히 제작되어, 상형청자의 중심 시기가 강도 이전인 12세기~13세기 전반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강도 시기 유적에서도 비교적 양질의 상형청자가 출토되어, 상형청자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강도 시기에는 개경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나한상 등의 종교 인물상이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²⁶ 종교 인물상이 개경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나 유적의 성격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나한상을

〈Table 2〉 강도의 상형청자 (①옥립리, ②월곡리, ③대산리, ④용정리, ⑤관청리, ⑥신문리, ⑦국화리)
Sculpted Celadon at Kang-do (Koryŏ Celadon Shards Excavated from the ①Ongnim-ri, ②Wŏlgot-ri, ③Taesan-ri, ④Yongjŏng-ri, ⑤Kwanch'ŏng-ri, ⑥Simmun-ri, and ⑦ Kuk'wa-ri Sites, Koryŏ (Excavation Report of the Wŏlgot-ri, Ongnim-ri, Taesan-ri, Yongjŏng-ri, Kwanch'ŏng-ri, and Simmun-ri Sites, Kanghwa and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khs.go.kr>)



2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22), pp. 13-15.

26 종교 인물상은 인물형의 주자나 연적 등과 달리 승배를 목적으로 제작된 像을 의미한다.

중심으로 한 종교 인물상의 유행 시기가 일반적인 상형청자보다 조금 늦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종교적인 추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3세기 참회와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성행과 현세적인 나한 신앙의 유행이 청자 나한상 제작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²⁷

개경과 강도 상형청자의 전반적인 양상을 볼 때, 13세기 후반~14세기 상형청자의 제작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려 사회의 사상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려 후기에 신유학이었던 性理學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충렬왕 대에 새롭게 유입된 원대의 도교는 呪術과 같은 요소들이 제거되고, 三敎會通의 경향을 보인다. 충선왕 대에 이르러서는 재위 기간 동안 초제가 한 차례만 거행되는 등 도교가 크게 위축되었다.²⁸ 따라서 왕실과 상류층 주도로 활발히 제작되었던 도교적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의례, 의식용 상형청자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형청자의 제작은 활발했던 앞선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겨진다.

2. 焚香 · 飲酒 · 玩賞 文化와 理想郷

고려의 상형청자를 대표하는 기종은 단연 향로라 할 수 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陶爐〉의 ‘狻猊出香’은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중의 하나이다.²⁹ 이 짧은 기록 하나에서 고려청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연구되었다. ‘산예출향’으로 대표되는 12세기 전반 고려 상형청자의 양상은 宋의 汝窯와 유사한데, 이는 1124년 徐兢의 기록과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 하지만 도법을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정형화된 형태로 제작한 송대의 상형도자와 달리 고려의 상형청자는 도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려 상형청자는 주로 물레로 성형한 후에 조각 등 다양한 장식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개성 있게 표현되어, 송대 상형도자의 格式美와는 다른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에 맞는 요소들이 적절히 가미된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은 완상과 용도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7 한아영, 앞의 논문, pp. 94-104; 김동현, 「고려시대 나한상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pp. 142-163.

28 김철웅, 「고려 忠烈王과 道教」, 『문화사학』 11·12·13 (1999), pp. 631-643.

29 『宣和奉使高麗圖經』卷32 「器皿」3 〈陶爐〉, “狻猊出香, 亦翡色也。上爲蹲獸, 下有仰蓮以承之。諸器, 惟此物最精絕。其餘, 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槩相類。”



Fig. 14. 이인상, <이인상 화첩의 부분> I Insang (1710~1760), *Calligraphy and Painting Album by I Insang* (detail), Chosŏn, 32.4×23.2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상형청자 향로는 뛰어난 조형성으로 국가적, 종교적인 의례 외에도 宴會나 玩賞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형청자가 내뿜는 香薰과 香煙은 연회의 공간을 속세에서 분리된 듯한 理想的인 공간으로 만들었다.³⁰ 당대 상류층은 현실적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산림에 은거하는 隱逸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無爲自然을 지향하는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속세에서 분리된 이상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공간이 書齋였다. 서재는 단순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곳에 그치지 않고,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교류하는 공간이었다. 서화를 감상하거나 琴을 연주하고 차와 향을 함께 나누었으며, 진귀한 기물이나 동식물 등을 함께 완상하며 교류하였다. 또한 왕실에 御苑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들은 자신의 공간에 庭園, 花園을 가꾸었으며, 연못을 조성하기도 했다.³¹ 盆栽를 키우고 花階를

30 박지영, 「고려의 향문화(香文化)와 향로(香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6-2 (2023), pp. 65-76.

3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3 記〈泰齋記〉, “今知奏事于公居富貴之中。致山水之美。以帝城猶謂之遠。遂卜於帝闕之傍。是昔鄭員外所居也。當時茂苑殘莊而已。公得之。尋泉脈之攸出。築石而甃之。凡飲吸盥漱。煎茶點藥之用。皆仰此井。因泉之汎濫者。濬作大池。被以菱芡。放鵝鴨其中。” (지금 知奏事 于公이 부귀를 누리면서 산수의 아름다움을 얻으려 하되, 제성(帝城)도 오히려 멀다 하여 마침내 대궐 곁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으니, 이는 옛날 鄭員外가 살던 곳이다. 당시에는 황무한 동산과 잔폐한 별장뿐이었는데, 공이 얻은 뒤에는 샘물 줄기를 찾아 돌을 쌓아 우물을 만들어서 마시고,

조성하여³² 꽃과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은 養生을 터득하는 당대 상류층의 중요한 문화였다. 무위자연을 지향하는 상류층의 交遊와 玩賞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화분이나 墩, 문방구 등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물로 자리하였다(Fig. 14).

강도시기 상류층 입도민의 주거 유적으로 파악되는 동락천 남쪽의 강화읍 신문리(596-1번지) 유적에서는 사자형 베개로 추정되는 청자 편이 출토되어, 상형청자가 출토되는 유적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Table 2-⑥). 사찰이나 분묘 유적 외에 일반 주거 유적에서 출토된 상형청자는 동반 유물과 함께 당시의 일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상형청자와 함께 출토된 유물로 베개, 화분과 돈, 향로 등은 가마터에서는 출토 비율이 매우 낮은 기종인데, 신문리 유적에서는 상당량이 확인되었다(Table 3, 4).³³ 이러한 특수 기종은 고려 상류층의 서재에서 이루어지는 완상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문방구 등의 고급 상형청자가 출토되는 강도 유적에서 청자 베개, 화분, 돈 등이 함께 출토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신문리 외에도 관청리, 옥림리 등 강도의 주요 유적에서 상형청자와 함께 화분, 베개 등이 출토되었다.

〈Table 3〉 강화읍 신문리 유적 출토 고려청자 Koryŏ Celadon Excavated from the Sinmun-ri Site in Ka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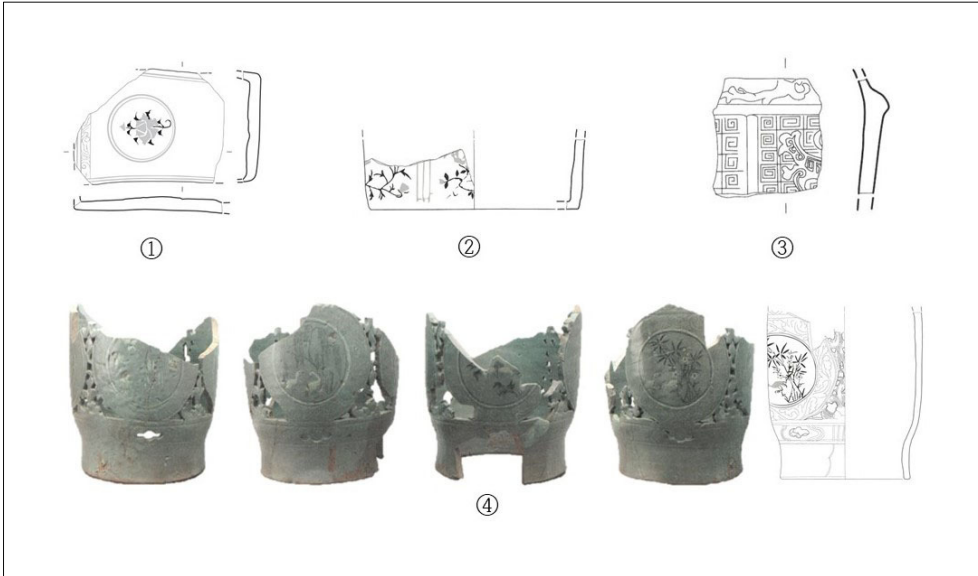
Types of Vessels	Quantity (pieces)	Percentage (%)	Types of Vessels	Quantity (pieces)	Percentage (%)
Bowl 鉢	18	9.4	Large Jar 缸	6	3.1
Small Bowl 盥	6	3.1	Lidded Case (body) 盒(身)	1	0.5
Dish 接匙	44	23.0	Seat Pedestal 墩	4	2.1
Cup 盞	32	16.8	Incense Burner 香爐	4	2.1
Cup Saucer 盞托	9	4.7	Pillow 枕	10	5.2
Lid 蓋	21	11.0	Flower Pot 花盆	6	3.1
Bottle 瓶	25	13.1	Large Bowl 大鉢	1	0.5
Jar 壺	3	1.6	Spittoon 唾壺	1	0.5

세수하고, 차 끓이고, 약 달이는 수용을 모두 이 우물로 하며,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저수해서 큰 못을 만들어 연꽃을 가득 심고, 거위와 오리를 그 가운데 놓아 길렀다.)

³² 중원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2), pp. 372-373.

³³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p. 391. 〈표 13. 출토 청자의 기종〉을 편집한 것이다.

〈Table 4〉 강화 신문리 유적 출토 고려청자 편(①베개, ②화분, ③향로, ④돈) Koryŏ Celadon Shards Excavated from the Sinmun-ri Site, Kanghwa (①Pillow, ②Flower Pot, ③Incense Burner, ④Seat Pedestal), Koryŏ (Excavation Report of the Sinmun-ri Site, Kanghwa)



청자로 제작된 화분은 상류층의 화훼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墩은 앉을 때 사용하는 의자이자 화분 등의 받침대로 사용되어 교유와 완상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자 베개 역시 상류층의 완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기물로 단순한 침구를 넘어 이상적인 꿈이나 공간으로 가기 위한 매개물이자 완상물로 인식되었다.³⁴

벼루의 硯池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오리, 원앙, 원숭이, 복숭아 등 동식물 모양의 청자가 있는 문인의 서재는 궁이나 저택 안 정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동식물을 키우고 감상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오리나 원앙, 원숭이, 두꺼비, 복숭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형청자 문방구는 고려 문인 귀족들의 書齋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 즉 仙界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위자연을 꿈꾸는 문인들의 이상향,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에는 閨苑이 있고 거기에는 瑤池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곳은 고려는 물론 동양에서 꿈꾸는 낙원, 이상향이다. 고려 상류층은 정원과 서재, 書案에 자신만의 瑤池를

34 김은경, 「고려시대 자침(瓷枕, 자기베개) 연구」, 『미술사학보』 44 (2015), pp. 7-42.

꾸미고, 자신들만의 瑤池宴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고려 상형청자에 酒器가 유독 많은 것은 국왕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더불어, 당시 고려에 유입된 官房道敎의 성격과 도교적 풍속이 성행했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³⁵睿宗(재위 1105~1122)은 宋을 통해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國敎를 도교로 바꾸고자 하였다. 이때 고려 도교의 성격은 福源宮의 건립을 주도하고 예종에게 많은 영향을 준 李仲若(?~1122)이 송에서 배워온 도교의 성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³⁶ 당시 송 徽宗(재위 1100~1126)은 내단과 符籙을 합한 수련 방식으로 신선이 되기를 바라며 도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符籙은 신에 대한 기도와 齋醮 등을 중심으로 행해진다.³⁷ 즉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행해진 재초 의식은 당시 송에서 유입된 관방도교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실 주도의 재초 의식에서 술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절차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기들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상형청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羽衣를 입은 인물(서왕모) 형태의 주자와 같은 고급의 상형청자들은 왕실에서 주도하는 도교 행사에서 사용되었음직한 기명이다. 民間道敎에서는 수경신과 같이 밤새 술을 마시며 즐기는 문화가 국속으로 일컬어질 만큼 성행한 것으로 보아, 음주와 관련된 기명들이 다종 다양하게 제작되고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표형, 과형의 기명들은 도기로 까지 제작되어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내단 수행 외에 수은, 납 등으로 만든 金丹을 복용해서 장생불사를 이루려는 외단술은 고려에서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금단에 대한 인식은 일찍이 퍼져 있었다.³⁸ 도교의 八仙 중의 한 명인 李鐵拐는 호로병에 仙藥 즉, 금단을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호로병이 불사약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 설화집인 『太平廣記』에서도 좁쌀같이 작은 알약을 호로병에 넣었다는 내용이 있다.³⁹ 조선시대의 그림이지만 金弘道(1745~

35 왕실 연례는 군신(君臣)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대감을 구축하는 왕권 강화의 수단이자 왕의 업적과 성덕을 찬양하여 국왕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통치 행위이기도 하다. 김윤경,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의 상징적 의미」, 『미술자료』 104 (2023), p. 44;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잔치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교육』 118 (2011), pp. 61-78.

36 김철웅, 「고려중기 李仲若의 생애와 도교사상」, 『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pp. 189-216.

37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pp. 111-116; 김윤경, 앞의 책, pp. 83-86.

38 고구려 고분벽화나 발해의 『金液還丹百問訣』 등을 통해 일찍부터 金液還丹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경, 앞의 책, pp. 42-82.

39 『太平廣記』, 神仙 46, “乃開囊視, 重紙裹一葫蘆子, 得九粒藥, 如麻粟, 依道士口訣吞之, 頓覺神爽不饑, 身輕醒然。” (주머니를 열어 보니 여러겹 종이에 싸인 호로(병)이 있었고, 그 안에 참깨나 조 같은 아홉 알의 약이 들어 있었다. 도사의 말에 따라 삼켰더니 즉시 정신이 상쾌해지고 배가 고프지 않았으며 몸이 가볍고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1806?)의 그림과 姜世晁(1713~1791)의 발문을 통해서도 호로병에 금단을 넣고 다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5).⁴⁰



Fig. 15. 김홍도, <신선의 부분> Kim Hongdo (1745~?), *Immortal* (Left) and Detail of *Immortal* (Right), Chosŏn, 131.5×57.6 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徐有榘(1764~1845)의 『林園經濟志』를 보면, 信靈香을 만들고 숙성시킬 때 호로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⁴¹ 금단처럼 丸의 형태로도 제작되는 향을 호로병에 넣었다는 것은 酒器 외에 호로병의 또 다른 용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은 향내가 나게 하는 것 외에도 藥用의 기능이 있어, 표형 기명이 주자나 연적 외에 藥이나 香(丸) 등을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회화 속에 신선이 들고 있는 표형병은 크기가 다양한데, 한 뼘 정도 크기의 표형병도 있다(Fig. 16). 실제로 청자와 금속기로 제작된 10cm 내외의 표형병 중에는 회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뚜껑이 있는 예들이 확인된다(Figs. 17, 18).

일반적으로 표형병을 주기로 인식해 왔지만, 약이나 향(환)을 담은 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형병에 담긴 술을 불로주로 여겼듯이, 표형병에 담긴 약 역시 신선의 불사약(선단)이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40 “回回道人學於鍾離權, 鍾離權學於倒葫蘆金丹者, 時有澹月在傍知狀, 豹菴評.” (回回道人是 종리권에게 배웠고, 종리권은 호리병을 뒤집어 金丹을 쏟아내는 자에게 배웠다. 당시 담월이 곁에 있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 豹菴이 평하다.)

41 향을 호로병에 담은 것 외에, 호로병에 香煙을 끌어들여 모으기도 하는데 탈속적인 분위기를 풍긴다고 적고 있다. 徐有榘,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2〈香供〉 製法 ‘信靈香’, ‘引煙入葫蘆法’.



Fig. 16. 이재관, <신선 이철괴의 부분> I Chaekwan (1783~1837), *Immortal I Ch'ŏlko*e (detail), Chosŏn, 113.4×25.8cm,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an'guk ūi *Togyo munhwa*, p. 191)

Fig. 17. <청자 표형 병> *Celadon Gourd-shaped Bottle*, Koryŏ, H. 8.1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8. <은제도금 표형 병> *Silver-plated Gilt Gourd-shaped Bottle*, Koryŏ, H. 11.1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IV. 맺음말

고려 상형청자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의 상징성과 상형청자가 활발하게 제작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12세기 전반 왕권 강화를 위한 왕실의 연례 문화와 더불어, 송에서 들어온 관방도교에 영향을 받은 고려 왕실·상류층은 다양한 기명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다종다양한 상형청자의 제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교는 교단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종교 및 풍속과 결합하여 문화의 내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도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不老長生에 대한 염원에 기반한 것으로, 내단과 외단을 통해 인간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長生을 이루려는 매우 現世적이고 祈福적인 세계관이다. 고려의 상형청자는 당시 고려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세 기복적인 세계관을 ‘長生과 繼續性’, ‘神·人的 媒介者’라는 함의의 소재들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고려 왕실 주관으로 행해진 연례, 의례와 무위자연을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상류층의 隱逸 문화, 불로장생을 중심으로 한 神仙 사상은 당시 고려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작된 고려 상형청자는 상징성이 명확한 소재의 형상을 차용함으로써, 별도의 부연 없이도 그 조형적 함의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각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고려 상형청자는 焚香·飲酒·玩賞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으며, 고려 상류층의 이상적이고 현세적, 기복적인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 주제어(keywords)_상형청자(象形靑磁, sculpted celadon), 상징(象徵, symbolism), 도교(道教, Taoism), 불로장생(不老長生, immortality), 완상(玩賞, aesthetic appreciation)

■ 투고일 2025년 2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2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25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補閑集』
『本草綱目』
『西河先生集』
『宣和奉使高麗圖經』
『太平廣記』
『林園經濟志』

2. 한국어 문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도교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2013.
_____, 『고려시대 상형청자 1』, 국립중앙박물관, 2022.
_____, 『고려시대 상형청자 2』, 국립중앙박물관, 2023.
_____,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24.
국방문화재연구원, 『강화 월곳리·옥림리 유적』,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기호문화재연구원,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2권 강화 용정리 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2019a.
_____,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3권 강화 대산리 고려분묘군)』, 기호문화재연구원, 2019b.
김동현, 「고려시대 나한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김윤정,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酒器의 상징적 의미」, 『미술자료』 104, 2023.
김은경, 「고려시대 자침(瓷枕, 자기베개) 연구」, 『미술사학보』 44, 2015.
김철웅, 「고려 忠烈王과 道教」, 『문화사학』 11·12·13, 1999.
_____, 「고려중기 李仲若의 생애와 도교사상」, 『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_____, 「고려시대의 도교 세시풍속」, 『민속학연구』 43, 2018.
두류문화연구원, 『강화 관청리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23.
박지영, 「고려의 향문화(香文化)와 향로(香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6-2, 2023.
박지현, 「고려시대 표형병(瓢形瓶)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백은경, 「高麗 象形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 숙, 「統一新羅와 唐의 衡鳥文 研究」, 『미술사연구』 24, 2010.
오영인, 「고려시대 원숭이형 청자문방용구에 대한 시론」, 『민속학연구』 45, 2019.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 중원문화재연구원, 『강화 대산리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 _____, 『강화 옥림리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 최유미, 「조선시대 백자 표형병(瓢形瓶)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한아영, 「高麗時代 靑磁 佛像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잔치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교육』 118, 2011.
- 함차랑, 「高麗時代 靑瓷 瓜形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화서문화유산연구원, 『강화 신문리 596-1번지 유적』, 화서문화유산연구원, 2024.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Imwŏn kyŏngje chi[*Treatises on Rural Economy*]

Koryŏsa[*History of Koryŏ*]

Pohan chip[*Collection of Writings to Relieve Idleness*]

Ponch'o kangmok[*Compendium of Materia Medica*]

Sŏha Sŏnsaeng chip[*The Collected Works of Teacher Sŏha*]

Sŏnhwa pongsŏ Koryŏ togyŏng[*Illustrated Account of the Xuanhe Embassy to Koryŏ*]

Taiping guangji[*Extensive Records of the Taiping Era*]

Tongguk isangguk chip[*Collected Works of Minister Yi of Korea*]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e, Yu-mi. "Chosŏn sidae paekcha p'yohyŏngbyŏng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6.

Chŏng, Chaesŏ. *Han'guk Togyo ūi kiwŏn kwa yŏksa*. Sŏul: Ihwa yŏja taehakkyo ch'ulp'an munhwawŏn, 2006.

Chungwŏn munhwajae yŏn'guwon. *Kanghwa Taesan-ri yujŏk*. Ch'ŏngju: Chungwŏn munhwajae yŏn'guwon, 2011.

_____. *Kanghwa Ongnim-ri yujŏk*. Ch'ŏngju: Chungwŏn munhwajae yŏn'guwon, 2012.

Ham, Ch'arang. "Koryŏ sidae ch'ŏngja kwahyŏngbyŏng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3.

Han, Ayŏng. "Koryŏ sidae ch'ŏngja pulsang yŏn'gu."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0.

Han, Chŏngsu. "Koryŏ sidae kugwang chanch'i ūi yangsang kwa kŭ sŏnggyŏk[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oyal Banquets of Goryeo Dynasty]", *Yŏksa kyoyuk* 118 (June 2011): 61-78.

Hwasŏ munhwoyusan yŏn'guwŏn. *Kanghwa Sinmun-ri 596-1 pŏnji yujŏk*. Koyang: Hwasŏ munhwoyusan yŏn'guwŏn, 2024.

Kiho munhwajae yŏn'guwŏn. *Inhwa-Kanghwa torogugan munhwa yujŏk*, Vol. 2, *Kanghwa Yongjŏng-ri yujŏk*. Ansŏng: Kiho munhwajae yŏn'guwŏn, 2019a.

_____. *Inhwa-Kanghwa torogugan munhwa yujŏk*, Vol. 5, *Kanghwa Taesan-ri Koryŏ Punmyo-gun*. Ansŏng: Kiho munhwajae yŏn'guwŏn, 2019b.

Kim, Ch'ŏlung. "Koryŏ Ch'ungnyŏl wang kwa Togyo", *Munhwasaahak* 11, 12, and 13 (December 1999): 627-643.

- _____. “Koryŏ chunggi I Chungyak ūi saengae wa Togyo sasang”, *Han'guk inmulsa yŏn'gu* 14 (September 2010): 189-216.
- _____. “Koryŏ sidae Togyo sesi p'ungsok”, *Minsok'ak yŏn'gu* 43 (March 2018): 27-47.
- Kim, Tonghyŏn. “Koryŏ sidae Nahan-sang yŏn'gu.”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22.
- Kim, Ŭnkyŏng. “Koryŏ sidae chach'im(瓷枕, chagibegae) yŏn'gu: chejak paegyŏng kwa chohyŏng ūi t'ŭkching ūl chungsim ūro[Ja-chim(瓷枕, porcelain pillow) in the Goryeo Dynasty: Its Background and Visual Characteristics]”, *Misul sahakpo* 44 (June 2015): 7-42.
- Kim, Yunchŏng. “Koryŏ wangsil ūi yŏllye munhwa wa ch'ŏngja chugi ūi sangjingjŏk ōimi: wanggwŏn kwa chugi[Sovereignty and Wine Vessels: the Feast Culture of the Goryeo Court and the Symbolic Meaning of Celadon Wine Vessels]”, *Misul charyo* 104 (December 2023): 40-69.
- Kim, Yunkyŏng. *Han'guk Togyosa*. Sŏul: Munsach'ŏl, 2022.
- Kukpang munhwajae yŏn'guwŏn. *Kanghwa Wŏlgot-ri, Ongnim-ri yujŏk*, Sŏul: Kukpang munhwajae yŏn'guwŏn, 2016.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Han'guk ūi Togyo munhwa: haengbok ūro kan'in kil[Taoist Culture in Korea: the Road to Happiness]*.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3.
- _____. *Koryŏ sidae sanghyŏng ch'ŏngja 1[Sculptural Celadon of the Goryeo Dynasty I]*.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22.
- _____. *Koryŏ sidae sanghyŏng ch'ŏngja 2[Sculptural Celadon of the Goryeo Dynasty II]*.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23.
- _____. *P'ur'ŭn sesang ūl pitta, Koryŏ sanghyŏng ch'ŏngja[Sculpted Celadon of the Goryeo Dynasty]*.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24.
- O, Yŏngin. “Koryŏ sidae wŏnsungi hyŏng ch'ŏngja munbangyonggu ūi siron[The Reconsideration of Goryeo Stationery Celadon in the form of Monkey]”, *Minsok'ak yŏn'gu* 45 (November 2019): 121-153.
- Pak, Chihyŏn. “Koryŏ sidae p'yohyŏngbyŏng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2.
- Pak, Chiyŏng. “Koryŏ hyang munhwa wa hyangno[Goryeo Dynasty Incense Culture and Incense Burners]”, *Herit'iji: yŏksa wa kwahak* 56, no. 2 (June 2023): 62-78.
- Paek, Ŭnkyŏng. “Koryŏ sanghyŏng ch'ŏngja yŏn'gu.”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4.
- Sin, Suk. “T'ongil Silla wa Tang ūi Hamjomun yŏn'gu”, *Misulsa yŏn'gu* 24 (December 2010): 61-85.
- Turyu munhwa yŏn'guwon. *Kanghwa Kwanch'ŏng-ri yujŏk*. Kimhae: Turyu munhwa yŏn'guwon, 2023.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시대 상형청자 소재의 상징성을 고찰하고, 어떠한 용도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개경과 강도의 상형청자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박초 식물, 석류, 복숭아, 토끼, 원숭이, 두꺼비 등은 '長生과 繼續性'의 상징으로 해석하였으며, 水陸兩生의 水禽류와 龜甲류는 '神·人의 媒介者'라는 함의를 지닌 소재로 보았다. 이러한 소재들은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것으로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왕의 장수와 왕업의 지속, 국가의 안녕이라는 왕권의 신성화와 강화를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려 왕실 주관의 宴禮, 의례와 無爲自然을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상류층의 焚香·飲酒·玩賞 문화 그리고 불로장생을 중심으로 한 神仙 사상은 당시 고려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려의 상형청자는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활발히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고려 상형청자는 자연스럽게 개성 있는 조형 표현을 통해 玩賞과 實用 측면 모두에서 고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Abstract

The Symbolism of Sculpture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Koryŏ Sculpted Celadon: Focusing on Sculpted Celadon at Kaegyŏng and Kang-do

Park, Ji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symbolism of motifs found in Koryŏ sculpted celadon and explores their uses and meanings, focusing on celadon at Kaegyŏng and Kang-do. Motifs such as gourds, pomegranates, peaches, rabbits, monkeys, and toads were interpreted as symbols of “longevity and continuity,” while aquatic birds and amphibious creatures such as turtles were understood as mediators between the divine and the human. These motifs express a strong desire for immortality, reflecting the this-worldly and wish-fulfilling aspirations of the period. Furthermore, they served a governing purpose, symbolizing the sanctification and reinforcement of royal authorit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king’s longevity, the perpetuation of his reign, and the well-being of the state.

The banquets and rituals organized by the Koryŏ royal court, the upper class’s culture of incense burning, wine drinking, and art appreciation guided by the ideal of *muwiyayŏn* (effortless naturalness), and the Taoist philosophy centered on immortality collectively shaped the socio-cultural atmosphere of the Koryŏ period, particularly among the royal family and aristocracy. Within this context, Koryŏ sculpted celadon was actively produced and utilized from the 12th to the 13th century. Distinguished by its naturalistic and unique expressions, Koryŏ sculpted celadon established an independent domain in both aesthetic appreciation and practical functionality.

* Senior Researcher, Artistic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